

중국어 신조어 규범 문제에 관한 연구

김 명 자*

<目次>

I. 서론	3. 신조어의 공간범위
1. 연구동기와 목적	III. 신조어의 규범문제
2. 연구방법	1. 언어의 규범기준의 변화
II. 신조어의 확정문제	2. 신생 어휘의 신조어가 되는 조건
1. 신조어의 정의	3. 신조어의 규범기준
2. 신조어의 시간범위	IV. 결론

I. 서론

1. 연구동기와 목적

언어는 사회발전에 따라 끊임 없는 발전과 변화를 거듭한다. 언어의 변화는 사회요인의 자극, 언어구조, 자신의 문제와 사람의 심리작용 등 3가지가 함께 융합된 혼합물이다.¹⁾ 중국은 1919년의 5·4운동, 19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1966년부터 약 10년 간 지속되었던 문화대혁명, 1997년 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후의 개혁개방운동 등 일련의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언어가 새로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과정

* 동의과학대학교 국제관광계열 부교수

1) [英]簡·愛切生, 徐家禎 역, 《語言的變化: 進化還是退化?》, 語言出版社, 1997, 孫錦, 〈新時期漢語新詞語〉, 《語言文學》, 2011年 第六期, 184쪽 중에서 재인용.

을 반복하였다. 특히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오랫동안 고수해 왔던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역 간의 교류 활성화, 해외여행의 시작 및 해외와의 교류 확대, 대만과의 접촉, 홍콩·마카오의 반환 등을 거치며 수많은 신조어가 탄생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신조어 관련 사전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어 교육자로서 중국의 신조어의 의미 및 용법을 검색하는 가운데 본인은 아래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억지로 짜 맞춘 비어를 신조어 사전에 수록하였다. 예를 들면, 《現代漢語新詞詞典》(1997)는 ‘幫別, 持望, 高朗, 廉宜, 捧獻, 本銷’ 등과 같은 비어를 수록하고 있다.

둘째, 중국어 방언을 현대 중국어 사전에 수록하였다. 예를 들면, 《現代漢語新詞詞典》(1997)은 공동어 계열에 속해 있지 않는 어휘 ‘阿拉, 調花腔, 丟份兒, 港紙, 花頭, 豁邊’ 등을 대량 수록하였고, 《新詞新語詞典》(1989)에도 ‘打托, 蓋兒, 船兒亮, 黃龍’ 등과 같은 방언이 수록되어 있다.

셋째, 이미 신조어가 아닌 오래된 어휘를 신조어사전에 수록하였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휘들로는 《新詞新語詞典》(1989)에 수록된 ‘愛國主義, 表揚, 邊區, 必然, 參軍, 長城, 出身, 大無畏, 党中央, 義務勞動, 真理, 大老粗, 阿姨’ 등이다. 이런 어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단어들로 신조어가 아니다.

넷째, 기존 어휘의 새로운 의미항(新義項)을 신조어로 취급하여 사전에 수록하였다. 예를 들면, 《漢語新詞語》(1991, 1992)에 실린 ‘大耳朵, 金字塔, 上船, 綠黃燈’, 《現代漢語新詞詞典》(1987)에 수록된 ‘爆炸, 起飛, 婆婆, 水分, 補課’ 등과 《漢語新詞詞典》(1986)의 ‘婆婆, 窗口’ 등이 이에 속한다.

신조어 관련 사전 혹은 신조어 연본 등에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어학자들이 신조어에 대한 정의, 범위 등을 인식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며, 신조어 관련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음을 방증한다 할 수 있다. 본고는 대량의 언어 예제를 통하여 신조어의 정의, 범위, 규범문제에

대하여 논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국 및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석·박사 학위논문 포함) 중에서 신조어의 정의, 범위, 규범 부분을 연구한 논문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관점을 비교·분석하고, 생활 속 상용 사례를 모아 묘사와 서술, 비교분석의 방법을 결합하여 신조어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에 제시된 신조어 관련 어휘 및 예문은 중국의 사전, 잡지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전형적인 어휘 및 예문을 발췌하였고, 본문에 응용·분석하였다. 본고는 실제 사례를 통하여 기존 관점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논증하는 방식으로 신조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II. 신조어의 확정문제

언어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어휘가 가장 활발하고 신속하게 변화·발전한다. 주로 신조어의 생성과 구어휘의 소실로 나타나며, 그 중 신조어의 생성은 어휘발전의 주류이다. 신조어의 대량 출현과 증가는 언어학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 몇 년간 신조어 사전, 신조어 연본 및 신조어 관련 논문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본 절에서는 먼저 신조어 관련 논문 중 신조어의 정의나 규범문제를 다룬 논문을 중심으로 논술하고자 한다.

1. 신조어의 정의

중국어 신조어의 관한 연구는 呂叔湘(1984)의 《大家來關心新詞語》와 陳原(1984)의 《關於新語條的出現及其社會意義——一个社會語言學者在北

街頭所見所感》가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²⁾ 呂叔湘과 陳原의 개척성 연구는 신조어와 같은 언어의 변이현상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그 연구 방법과 사고의 전개과정에서 그동안의 보편적 연구 방법과 사고 과정을 뛰어넘는 방향성과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후학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중국어 신조어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그 성과 또한 풍부하다.³⁾

陳原(1984)은 불가리아 언어학자 Atanas Dancer Atanasov(1983)의 신조어(Neologism)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였는데, “신조어란 언어 사용자들이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어휘를 일반 언어군에서 찾을 수 없어서 문어체 및 구어체에 도입한 새 낱말이며, 신조어는 아래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⁴⁾고 하였다.

“첫째, 신조어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다른 언어로 대체할 수 없어야 한다.

둘째, 신조어의 구조는 언어 규범과 사회 습관에 부합되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생각과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입에 올리기 쉬우며, 신속히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⁵⁾

陳原에 이어 많은 학자들이 신조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신조어에 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劉叔新(1990:283)은 “한 어휘가 무에서

2) 劉吉艷, 〈漢語新詞語與鄰近語集成的關係辨析〉, 《渤海大學學報》, 2002年 第5期, 79쪽.

3) 劉吉艷, 李爽, 顧阿麗, 〈漢語新詞語本體研究概述〉, 《語言文學研究》, 2011年 第7輯, 29쪽.

4) Atanas Dancer Atanasov, *LaLingua Esenco de Esperanto*, 陳原, 〈關於新語條的出現及其社會意義〉, 《語言研究》, 1984年 第2期, 151쪽 중에서 재인용.

5) 陳原, 〈關於新語條的出現及其社會意義〉, 《語言研究》, 1984年 第2期, 54, 151-152쪽.

第一、它確實是必需的, 無法替代的; 第二、它的構造符合語言規範和社會習慣; 第三、它能準確地表達這種新的思想或概念; 第四、它容易上口, 能很快被人接受。

유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으며 널리 사용되고 언어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신조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徐波, 李曉英, 羅玉娟, 周永惠, 胡倩, 高艷寧 등⁶⁾이 신조어에 관한 정의를 내 놓았는데 이들의 관점을 종합하면 첫째, 신조어는 새로운 사물을 표시하고, 새로운 개념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둘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사전의 수록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신조어에 관한 논문들은 대부분 중국학자들의 신조어에 관한 관점을 받아들였는데 예를 들면, 박은숙(2012:8-9)은 신조어에 관한 정의는 현재 사람들에게 의하여 공인된 확실한 견해는 없음을 언급하면서 새롭게 생겨난 말로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내며, 대중에게 받아들여져 일반 어휘로 사용되어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로 정의한다고 하였다. 정미란(2006:6-7) 또한 중국의 晁繼周(1998)가 《21世紀現代漢語詞匯學》에서 제시한 신조어 판단기준 4가지⁷⁾를 설명하면서 신조어는 ‘새롭

- 6) 徐波(1998:102)-신조어는 개혁개방 후 출현한 새 어휘이다.
 李曉英(2005:88-92)-신조어는 새로 생긴 어휘나 문장, 혹은 새 의미를 표현하는 구어휘이다.
 羅玉娟(2002:49-50)-신조어는 새로 창조된 어휘이든지 기타 언어 속에서 혹은 민족 언어의 방언, 고어, 혹은 고유어 중에서 빌려온 어휘이다.
 周永惠(2004:46-49)-신조어는 이름 그대로 새로 창조된 것, 의미와 형식에서 모두 새것이어야 한다.
 胡倩(2009:112)-대외교육의 측면에서 신조어는 반드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어휘여야 한다.
 高艷寧(2011:104-105)-신조어는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된 외래어, 새로 만들어진 단어 또는 의미의 전환방식을 통하여 새로 생성된 말과 어휘이며, 사전에 수록되어야 한다.
- 7) 晁繼周, 《21世紀現代漢語詞匯學》, 北京大學出版社, 1998.
 첫째, 보편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중의 공통적인 이해 아래 사회적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어휘여서는 안 되며, 일정한 시간을 거쳐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셋째, 필요성과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 필요성이란 한 개의 어휘는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어휘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어떠한 뜻인지 어떠한 사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라는 특징을 기본으로 하고, 일정기간 동안 일상생활에서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안정적,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수진(2005:7-8)은 중국 王鐵昆(1992)의 신조어가 갖추어야 할 4가지 요소와 晁繼周(1998)가 분류한 4가지 기준⁸⁾을 정리·분석하고, 신조어의 중요한 특징은 역시 새로운 뜻의 발생에 있으므로 형태가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뜻이 생겨났다면, 사람들은 이를 새롭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를 신조어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전에 존재하던 의미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것 역시 신조어로 보아야 하는데, 신조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축약어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신조어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그 외 이영매, 최윤경, 이희경⁹⁾도 신조어에 관한 정의를 내린바 있는데 국내 학자들 역시 신조어는 새로운 단어로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며,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는지의 유무에 따라 신조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부분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신조어의 생성 및 소멸 과정에서 상기 신조어에 관한 정의들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王鐵昆(1992:14-16)이 이미 이의를 제기한바 있다. 본고는 王鐵昆의 견해를 바탕으로 그 주장의 타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王鐵昆은 첫째, 신조어는 반드시 새로운 사물 혹은 새로운 개념을 나타

정미란, <현대중국어 신조어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6쪽 중에서 재인용

- 8) 첫째,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필요성과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조어성이 있어야 한다.
- 9) 이영매(2011:8-10)-신조어란 일정한 사회 환경에서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새롭게 생겨난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의해 널리 사용되는 새로운 어휘, 즉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져 사용되는 어휘이다.
 최윤경(2008:7)-신조어는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상당히 광범위한 공간에서 일정 시간 동안 존재하는 속성을 가진 낱말로, 이것은 새로 만들어진 낱말인 신어와 새로운 의미인 신의를 포괄한다.
 이희경(2011:1-2)-신조어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말이다.

낸다는 정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본고는 우선 축약어가 신조어에 포함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趙克勤(1988: 32-33)은 신조어의 특징을 논하면서 그 첫 번째 특징으로 신조어에서 축약어의 비중이 비교적 크다고 하였다. 그리고 많은 축약어의 예를 들었는데 ‘廣交會’, ‘電大’, ‘地鐵’, ‘高幹’, ‘彩電’, ‘待業’ 등과 같다. 이것은 분명 축약어를 신조어에 포함시킨 것으로, 많은 축약어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지 않고 원래의 어휘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環保’는 ‘環境保護’의 개념과 같은 의미로, 새로운 사물이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趙克勤이 예를 든 ‘地鐵’, ‘高幹’, ‘彩電’, ‘待業’ 등도 마찬가지다. ‘地鐵’는 ‘地下鐵道’, ‘高幹’은 ‘高級幹部’, ‘彩電’은 ‘彩色電視’, ‘待業’는 ‘等待就業’이다. 이들의 의미도 원래의 뜻과 똑같아 사람들이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며 적응기간도 없었다. 어떤 경우는 축약어가 더 익숙하여 축약어를 먼저 이해하고 원 언어를 찾아 되풀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최근 몇 년에 걸쳐 나타난 ‘爬格子’, ‘爆滿’, ‘保護傘’은 원래 ‘寫作’, ‘滿員’, ‘保護勢力’란 뜻인데 단지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물 혹은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조어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고는 반드시 새로운 사물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종전에 쓰지 않았던 새로운 표현을 사용했다면 신조어라 본다.

둘째,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혹은 신선함, 생소함이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신조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수많은 신조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치지 않고 생겨나자마자 바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고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改革開放’, ‘三講’ 등과 같은 말은 생겨나자마자 바로 보편화되었다. 다만 억지로 끼워 맞춘 어휘들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선함 혹은 생소함으로 어휘를 판단하면 신조어의 범위 규정에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전문 어휘들은 비전문공자에게 늘 신선함 혹은 생소함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언어학계에서 이야기하는 ‘二價

動詞, ‘轉換生成語法’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중국은 국토가 넓고 방언의 분포가 다양하여 어느 한 지역의 방언은 다른 방언지역 사람들에게 늘 신선하고 생소할 것이다. 그리고 보통 억지로 끼워 맞춘 비어는 사람들에게 신선함과 생소함을 준다. 따라서 본고는 신선함 혹은 생소함이 신조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셋째, 사전의 수록 여부에 따라 신조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정이든 편찬의 목적, 편찬자의 수준 및 사용대상에 따라 수록되는 어휘가 선택되거나 혹은 누락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사전에 없는 어휘라고 꼭 신조어라 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예를 들면, 《現代漢語詞典》(1994)에 없는 ‘一把手’, ‘評估’ 등은 그 당시 신조어였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사전에는 이 어휘들이 누락되었다.

결론적으로 신조어를 확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신조어를 정의 내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王鐵昆(1992)이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어 현실을 무시하고 선행자의 의견을 간과, 회피하면서 기존의 적절치 못한 관점을 답습하는 것은 언어 연구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 뿐더러 신조어 연구에 한계를 불러일으킨다. 본고는 ‘신조어의 성립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신조어의 의미를 확정짓고 신조어에 대해 재인식하고자 한다.

2. 신조어의 시간범위

기존 신조어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신조어의 현저한 특징으로 새로움을 꼽으면서 이 ‘새롭다’에 대한 정의가 통일되고 있지 않다. 1) 신조어는 5·4 운동 시기 후에 생성된 어휘다.¹⁰⁾ 2) 건국(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출현한 어휘들을 말한다.¹¹⁾ 3) 건국 이래 혹은 건국 이전 해방구와 근거

10) 符淮青, 《現代漢語語彙》, 北京大學出版社, 1985, 169쪽.

11) 閩家驥, 《現代漢語詞典凡例》, 上海辭書出版社, 1985, 68쪽.

지의 어휘를 말한다.¹²⁾ 4) 신조어의 시기를 정하기 힘들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혹은 1978년 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같은 역사 전환기를 경계로 정할 수 있고, 또는 최근 3년, 5년 혹은 10년을 하나의 시간 범위로 정할 수 있다.¹³⁾

그러나 본고는 위의 4가지 정의 모두 신조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본다. 5·4 운동 시기는 현대중국어 형성시기이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어휘들은 오늘날에 이르러 이미 그 신선함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民主, 科學, 抗日, 降落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떤 어휘는 개념과 사물의 소실에 따라 사용이 미비하다. 예를 들면, ‘限共, 容共, 兒童團’ 등이 그러한데, 5·4 운동 전후로 생겨난 이러한 어휘들은 이미 구어휘가 되었다. 신조어 시간범위를 건국 이전 혹은 건국 이후로 설정한 것도 시간범위가 너무 넓다. 예를 들면, ‘雙百方針, 全民, 三反, 五反, 抗美援朝, 革委會, 最高指示’ 등 들이다. 이런 어휘들은 이미 새롭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어떤 어휘들은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들이 소실됨에 따라 없어지고 또한 점차 구어휘가 되어버렸다.

사실 신조어는 구어휘와 상대적이다. 50년대에 나온 어휘는 40년대 나온 어휘보다 새것이고, 60년대 나온 어휘는 또 50년대보다 새로운 것이다. 그렇다고 또 구어휘와 신조어의 상대성을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다. 즉 오늘날의 어휘는 어제 어휘보다 새것이고 어제 어휘는 구어휘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어휘 중의 신조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신조어의 상대성 때문에 신조어를 관찰할 때 반드시 시간의 참고기준을 정해야 한다. 즉 어느 시기의 어휘를 고찰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열거한 사전들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구어휘인 것이 수록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참고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조어의 연구 시점을 정하고, 다음으로 신조어의 시간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劉叔新

12) 趙克勤, 〈論新詞語〉, 《語文研究》, 1988年 第2期, 32-33쪽.

13) 李振傑, 〈近十年漢語中新詞新義的產生〉, 《語言教學與研究》, 1988年 第2期, 82쪽.

(1990:283)은 어느 한 어휘가 일정 기간 동안 존재할 때 즉, 20~30년 정도면 사람들에게 모두 익숙해지고 신선한 느낌은 사라지며, 신조어의 범위에서 일반어휘로 바뀌게 된다고 하였다. 劉叔新의 관점을 근거로 국내 신조어 관련 발표논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간적 범위를 정하고 연구하였다.¹⁴⁾ 이는 신조어를 정확하게 연구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본고는 신조어의 범위를 20년 전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신조어의 시점과 시간범위를 정하고 나면 신조어 연구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

3. 신조어의 공간범위

신조어는 시간범위 뿐만 아니라 공간의 확장 및 연장과도 관련이 있다.¹⁵⁾ 본고에서는 이를 ‘공간범위’라 명명하기로 한다. 이러한 공간범위에서 유행어와 전문용어가 신조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다. 안준표(1999:15)는 《신시기 중국어의 신어연구》에서 신조어의 범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서 유행어는 새로이 나타난 말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으나, 일반화되어 쓰지 못하므로 신조어의 범주에는 들지 못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은숙(2003:8)은 유행어를 신조어 범주에 포함시켜 연구하면서 학자에 따라 유행어를 신조어에 포함시켜 연구하기도 하고 포함시키지 않기도 한다고 하였다.

劉吉艷(2002:79-82)은 기본적으로 방언은 중국민족 공동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신조어에도 속하지 않지만 일부 방언은 지역을 뛰어 넘어 공동어 속에 융합되고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받을 때 신조어로 전환될 수

14) 이영매, 《중국 신조어 연구-2007~2009년 신조어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2.

구상권, 《최근중국신조어연구-2006년~2010년 신조어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2.

15) 劉叔新, 《詞匯學與詞典學問題研究》, 天津人民出版社, 1984, 9-10쪽.

있다. 또한 전문용어는 국민적 언어로서 보편성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조어에 속하지 않으며, 유행어는 일정한 시간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예, 광주유행어, 청소년유행어, 캠퍼스유행어, 컴퓨터유행어)에서만 사용되므로 신조어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행어의 독창성과 신선함 때문에 전파 속도가 빠르고 대중에게 쉽게 흡수되므로 대중성을 갖추어 신조어가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본고는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선 공동어의 어휘 공간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劉叔新(1984:9-10)은 한 어휘는 단지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은 개별 방언지역¹⁶⁾에서 사용된다. 즉 ‘太土’는 방언일 뿐이고 공동어로 분류되어서는 안 되며, 제한적 범위의 전문 어휘 또한 민족 공동어 테두리 밖에 있어야 하고, 어휘에 圍繞하고 기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周薦(1987:157)도 방언은 공동어의 상대적 표현으로 각 방언은 공동어에 종속되는 동시에 각각의 체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보면 공동어는 공간범위에서 방언과 사용범위가 제한적인 전문용어를 포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공동어와 신조어의 공간범위는 민족 공동어의 어휘 공간범위와 같아야 한다. 즉 방언에서 유행하는 신조어와 홍콩, 대만에서 유행하는 언어 및 범위가 제한적인 전문용어는 제외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북경이나 천진 등지에서 유행하는 ‘蓋了帽, 震了, 打托兒’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또한 ‘循環語句, 異話, 坐化, 語誤, 電解質’ 등과 같은 전문용어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언어는 사회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북경 방언 ‘倒爺, 走穴, 穴頭’ 등과 같이 이미 방언지역을 벗어나 전 국민이 사용하는 유행어가 되어버린 이런 어휘를 신조어로 취급하는 부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전문용어도 마찬가지다. 전문분야의 일부 인사들이 사용하던 어휘 ‘網頁, 軟件’ 등과 같이 사회적인 필요성과 변화에 따라 보편화되고 대중화 된다면 이 또한 신조어 범주에 포함시켜 연구해야 한다.

16) 기초 방언구에서 세부 구분되는 개별 방언지역.

신조어의 시공범위를 정하고 나면 이러한 범위에 들어오는 어휘들이 어떤 것이 신조어인지 그 판단기준을 정하기로 하자.

Ⅲ. 신조어의 규범문제

陳原에 의하면 “사회언어학 연구의 주요 대상이자 핵심은 변이(變異)이다. 변이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사회현상이다. 변이가 없으면 언어의 발전도 없고 사회언어학도 존재하지 않는다.”¹⁷⁾ 신조어의 대량 출현은 바로 중국어 변이현상의 주요 내용이다. 또 “어떤 사회든 사회조직과 구성원이 사용하는 언어문자는 모두 규범적이어야 한다. 만약 각자 다른 변이체를 사용하다면 사회 교류에 혼란을 초래한다. 더불어 규범화는 사회언어의 공통적인 요건이며 정보사회는 더욱 규범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보화는 바로 정보 교류의 고속, 고효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규범화 없이는 고속, 고효율성을 논할 수 없다.”¹⁸⁾ 陳原의 이와 같은 견해는 언어문자가 변이하는 동시에 반드시 규범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사회언어학 연구에 있어 규범화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어휘 체계도 마찬가지다. 신조어가 생겨났을 때 이에 대해 규범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언어는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본고는 신조어의 규범화 문제를 잘 처리하려면 아래 세 가지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언어의 규범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둘째, 신조어가 신조어로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셋째, 어휘의 규범기준은 어떤 것인가? 아래에서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7) 陳原, 〈變異和規範化〉, 《語文建設》, 1987年 第1期, 3쪽.

18) 陳原, 〈新詞新語新用法〉, 《語文建設》, 1988年 第4期, 4쪽.

1. 언어의 규범 기준의 변화

언어의 규범기준은 사람들이 수많은 언어 실천 속에서 총결, 귀납해낸 것이지만 어떤 한 사람이 지어내고 주관적인 판단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언어활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張斌(1991:53)이 말한 것처럼 어떠한 경우든 평론가는 언어의 규범문제를 고정 불변하는 것이라고 보서는 안 된다. 50년대는 비규범적이던 표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상용되는 과정에서 결집되고 귀납되어 80년대는 이미 보편화된 규범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語法修飾講話》에서 呂叔湘, 朱德熙는 ‘放置’, ‘勞改’, ‘戰機’를 비어로 분류한바 있지만 지금 이 어휘들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어떤 것은 사용빈도가 아주 높다.

李行健(1987:21-34)도 언어의 규범화 문제를 고찰할 때 반드시 언어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변화를 주시해야 하며 언어 사용자들의 심리요인과 각종 사회요인을 주시해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언어의 변화 배경과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실제 원인을 알 수 없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전문가의 문장 혹은 명작에서 평가된 비규범적인 용례를 발전적인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융통성 없이 그들이 만든 기준으로 규범화 문제를 작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 원칙은 언어의 규범화 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본고의 규범 기준은 바로 변화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언어발전에 순응하여 규범화하고, 불변하는 여러 항목으로 언어발전을 구속하진 않는다. 그럼 본고에서 말하는 ‘동태적 규범 기준’은 기준이 없거나 너무 신축적인 것은 아닌가? 그것은 아니다. ‘동태적 규범 기준’은 여전히 규범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 규범 기준을 무시하고 멋대로 발전하고 어떤 신조어든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언어가 무질서에서 유질서로 바뀌는 것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언어의 자동선별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역량의 약속이다. 언어의 변이는 종종 언어 규범화에 충격적 역할을 한

다. 그러므로 언어를 운영하는 단체는 자주 비규범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기호학의 관점에서 볼 때 언어는 기호체계이고, 언어의 어휘는 하나 하나의 기호로 이루어져 있다. “기호는 임의성을 지니는데 이것은 기호의 형성성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또한 기호는 제한성을 지닌다. 이는 기호 사용자가 반드시 함께 이해하는 기초가 전제되어야 한다.”¹⁹⁾ 언어 사용자 무리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기호에 대해서 언어 사용자 무리는 계속해서 배열을 진행한다.

여기서 다시 강조해야 될 부분은 언어의 변이라는 충격을 받은 규범 기준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리한 중국어 규범 기준 대부분은 정확하며 적용되는 것이다. 충격을 받은 부분은 다시 재조정되며 새로운 규범 기준으로 대체될 것이다.

2. 신생 어휘의 신조어가 되는 조건

신생 어휘가 어떻게 하면 신조어의 조건에 부합될 것인가? “불가리아 언어학자 Atanas Dancer Atanasov(1983)는 신조어는 반드시 아래 4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신조어는 확실히 필요해야 되고 대체할 수 없어야 된다.

둘째, 신조어의 구조는 언어규범과 사회습관에 부합되어야 한다.

셋째, 신조어는 정확하게 새로운 생각과 개념을 표현해야 한다.

넷째, 신조어는 쉽게 입에 올릴 수 있고, 금방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²⁰⁾

이러한 인식은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국내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 4가지 조건이 적절한 조건인지 되고해 보기로 한다. 첫 번째, 신조어는 확실히 필요해야 되고 대체

19) 文煉, 〈與語言符號有關的問題〉, 《中國語文》, 1991年 第2期, 88쪽.

20) Atanas Dancer Atanasov, 〈Neologisomoj en Esperanto〉, 陳原, 〈關於新語條的出現及其社會意義〉, 《語言研究》, 1984年 第2期, 151쪽 중에서 재인용.

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조어를 고찰할 때 많은 신조어들이 꼭 필요하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花架子’, ‘滑坡’, ‘電耗子’는 고유어휘 ‘形式主義’, ‘下降’, ‘竊電者’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구조가 언어규범과 사회습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어 속 많은 비어도 대부분 구조면에서 언어구조 규칙에 부합된다. 예를 들면, ‘啟導’의 구조 결합방식은 ‘啟發’, ‘滌脫’와 같고 구조상 ‘滌辣’와 같다. 두 단위는 모두 어휘의 구조 결합 규칙에 부합된다. 그러므로 “어휘 구성에서 규칙에 부합되는지 아닌지는 신조어와 비어를 구분하는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많은 비어들 모두 중국어의 구성 규칙에 알맞기 때문이다.”²¹⁾ 그리고 네 번째, 입에 쉽게 올릴 수 있고 금방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부분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신조어는 사람들에게 의해 바로 받아들여지지만 일부 어휘들은 꼭 그렇지도 않다. 예를 들면, 50년대에 신조어로 출현한 ‘流淌’, ‘概貌’는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Atanas Dancer Atanasov가 제시한 신조어에 대한 조건은 실제 활용에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신조어에 대한 고찰 결과 본고는 신조어가 아래 원칙에 따라 생성되고 그에 맞는 역할을 한다면 신조어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3. 신조어의 규범 기준

만약 신조어를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신조어이고, 다른 하나는 비어, 즉 억지로 짜 맞춘 어휘로 의미가 모호하여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신조어는 언어 변이의 적극적 산물이다. 그러나 비어는 소극적 산물이며 교제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럼 어떻게 신조어와 비어를 구분할 것인가? 즉 신조어의 규범 기준이 어떠한지에

21) 候敏, 〈關於新詞語和生造詞的判斷標準〉, 《語文建設》, 1988年 第2期, 54쪽.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본고는 아래 몇 가지 구체적인 원칙을 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1) 보충성 원칙

새로운 사물, 새로운 현상이 생겨나면 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새 명칭이 바로 신조어이다. 만약 이들이 없으면 교제상의 공백을 야기할 것이다. 예를 들면, ‘促銷’, ‘水床’, ‘激光’, ‘特區’, ‘雙學位’, ‘電子門’, ‘塑鋼窗’ 등이 이에 속한다.

사회 어떤 영역이 특별히 발전하든가 혹은 어떤 영역에 특별한 관심이 모이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신조어가 많이 생길 것이다. 예를 들면, 개혁 개방이후 사람들은 ‘特區’, ‘打工仔’를 만들어내었고,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사람들의 사유의 폭이 넓어졌고 ‘軟件’, ‘信息’, ‘網絡’ 등과 같은 술어(術語)들이 생겨났다. 이 어휘들이 표현하는 개념은 원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세밀하고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는 어휘들은 보충성에 속한다. 그러나 아래 예문 중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보충성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아니며, 아래에서 이야기하려는 기타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① 黎明在韓國人心目中，一直是個健康、戀直的大男孩，所以大部分韓國人都覺得他和金喜善的形象不合襯。(《生活報》2000.3.13.)
(여명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줄곧 건강하고 우직한 남자애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는 김희선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
- ② 坐5路汽車的人特別多，每次坐這趟車都讓人擠站得難受。(轉引自黃伯榮、廖序東主編的《現代漢語》)
(5번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특별히 많다. 이차를 탈적마다 배좁아서 괴로웠다.)
- ③ 幫助那些自願聯婚的婦女辦理戶口遷移和結婚手續，防止非法婚姻和‘黑戶口’的出現。(《中國社會報》2002.2.25)
(“聯婚”을 자원하는 부녀자들을 도와서 호적 이적과 결혼수속을 하여

불법혼인과 호적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였다.)

- ④ 在工作崗位上，他總怪怨沒有時間讀書，快變成‘內行里的外行’。(《鐘山》1987.1)

(직장에서 그는 늘 책볼 시간이 없음을 원망한다. 전문가속의 아마추어가 다 되어가고 있다.)

- ⑤ 蔡大安再不能說什麼，下來就在金狗前大罵田一申是狗頭，為人狡奸，心地歹毒，偏偏田中正寵愛他。(《收穫》1997.1)

(蔡大安은 더 이상 뭘 말할 수 없다. 내려와서 바로 金狗앞에서 田一申을 개대가리라 욕하였다. 사람은 교활하고 지독한데 田中은 하필 그를 총애한다.)

현대 중국어에는 분명 ‘合適’, ‘擠’, ‘聯姻’, ‘抱怨’, ‘狡詐’ 등의 어휘들이 있는데 굳이 ‘合衬’, ‘擠站’, ‘聯婚’, ‘怪怨’, ‘狡奸’ 등 어휘로 표현할 필요성이 없다. 보충성 원칙에서 만들어지는 신조어는 ‘교제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이다. ‘合衬’이 ‘合適’보다 의미가 더 깊고, ‘怪怨’이 ‘抱怨’보다 정도가 더 높고, ‘狡奸’이 ‘狡詐’보다 의미가 더 심한 것도 아니다. 그럼 이런 어휘들은 사용의 가치가 없다. 물론 기존 어휘의미에 비해 신조어의 의미가 반드시 더 심오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어휘들이 확실히 습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어휘들은 새로운 개념도 없고, 또한 교제의 공백을 메우는 것도 아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휘들이다. 비록 작가의 의도가 창작에 있었다 할지라도 작가의 의도를 독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창의를 어떻게 논할 수 있겠는가? 만약 기존에 있는 어휘들이 교제에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비슷비슷하고 난해한 다른 어휘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위 상황과 반대로 만약 아래 예문과 같이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군에서 이미 그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의 어휘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동의어가 생성되고 또 이 동의어가 기존 어휘보다 표현력이 더욱 탁월하고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휘를 비로소 신조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보충성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형상

보충성 원칙'에 부합된다.

- ⑥ 電耗子 → 竊電者 (전기 도둑)
- 代溝 → 兩代人之間的差異 (세대차)
- 掛靴 → 足球運動員結束運動生涯 (축구선수의 은퇴)
- 追星族 → 對明星狂熱崇拜的人群 (팬클럽)
- 保護傘 → 保護勢力 (보호 세력)
- 馬蜂窩 → 難於解決的棘手問題 (해결하기 어려운 일)
- 穿小鞋 → 報復刁難 (보복)
- 花架子 → 形式主義 (형식주의)
- 國腳 → 國家隊足球運動員 (국가축구대표선수)

위 예들은 모두 형상성으로 이미 표현이 굳어진 어휘들이다. 그 중 어떤 어휘는 기존 어휘를 완전히 대체하였다. 이것은 '형상 조어'의 위력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어휘는 '형상 조어'의 영향력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형상 조어'의 원칙을 오히려 위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 ⑦ 舌頭好像短了一截, 心臟奇異地悸動著, 一股沸辣的血掠過太陽穴, 從未有過的窘迫一下子攔住了我。(《人民文學》 2006.7)
(혀가 한 토막 짧아진 것처럼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며 뜨거운 피가 태양혈을 스치며 종래로 없던 궁핍감이 갑자기 나를 꼭 잡았다.)
- ⑧ 樹心空蝕了的樟樹幹恰像一根煙囪似的從頂端透冒出蒸汽和油的混合煙霧。2007.7.8 www. baidu.com
(좀먹은 마른 녹나무에서 마치 하나의 굴뚝처럼 수정기와 기름의 혼합물이 배어나왔다.)
- ⑨ 因为经常被妈妈揍打, 而且不留情。2013.7.22 www. baidu.com
(왜냐하면 자주 엄마한테 맞는데 그것도 사정없이.)

위 예문⑦에서 작가는 수사형식으로 피의 형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 '沸辣'를 사용하였으나 '沸辣'가 어떤 피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예

문⑧, ⑨의 ‘透冒’와 ‘揍打’는 작가가 음절을 맞추기 위해서 동의어인 ‘透’와 ‘冒’를 ‘透冒’로 ‘揍’와‘打’를 ‘揍打’로 적었다. 그러나 독자한테 정보 전달에 있어서 단독으로 적을 때와 전혀 차이가 없고 형상성부분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는 반면 의미의 이해가 어려워 졌다.

우리가 추구하는 형상성은 새롭게 만들어진 어휘가 쉽게 사람들이 연상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초월해서는 되지 않으며 또한 정보 전달에 있어서 더욱 탁월해야 된다. 형상을 위한 형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형상성은 일종의 자연적인 표현이다.

본고에서 보충성 원칙만을 논하고 많은 학자들이 언급한 필요성 원칙에 대해 논하지 않는 것은 필요성이 주로 사람들에게 ‘우선조건’으로 오해되는 것을 우려해서이다. 만약 원래 어휘군 중에 본래의 뜻을 표시하는 어휘가 있다면 다른 어휘를 만들어 낼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다. 사실 보충성 원칙은 기존에 없는 어휘 공백(예, 새로운 침대 매트리스로 물을 채운 매트리스가 만들어졌을 때 이를 ‘水床’이라 이름 짓는 것)을 메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형상성의 공백을 채우는 것, 감정색채의 공백(예를 들어, ‘胡吃海喝’는 ‘大吃大喝’와 비슷한데 부정적인 의미색채를 포함하고 있음) 등을 채우는 것이다.

2) 명확성 원칙

신조어 대부분은 중국어 고유의 형태소를 다시 배열하고 조합해서 구성한 것이다. 대부분의 신조어 의미와 기존 어휘 의미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이것이 바로 신조어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며 널리 확산되는 원인중의 하나이다. 의미가 명확하고 정확한 것이 신조어가 사회 언어습관 속에 받아들여지고 통용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9기 2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정부보고 중 朱鎔基에 의해 언급된 ‘逃匯’, ‘套匯’, ‘騙匯’ 등 몇 가지 어휘는 신조어이다. 왜냐하면 朱鎔基가 사용한 어휘중의 ‘逃’, ‘套’, ‘騙’은 모두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어서 중국어 사용자는 바로 이와 같은 어휘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上崗’, ‘下崗’, ‘轉崗’ 중의 ‘上’, ‘下’, ‘轉’의 의미도 분명해서 이 세 가지 형태소로 구성된 신조어도 그 의미가 명확하고 분명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亮麗’ 또한 ‘漂亮, 美麗, 有光彩’로 쓰인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亮’이 ‘有光澤, 漂亮’의 의미이고, ‘麗’는 ‘美麗’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頭髮亮麗’는 ‘頭髮漂亮’, ‘頭髮美麗’보다 전달하는 정보량이 많다. 그러나 아래 예문들 가운데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조어로 보기 힘들다.

- ⑩ 薩特存在主義因有冷漠、悲觀、絕望的意緒，在其文學作品中表達得相當明確、集中。(《藝潭》 2003.2)
(싸오디존재주의는 냉담하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정서가 있어 그의 작품 속에서 아주 명확하고 집중적으로 표현하였다.)
- ⑪ 衛士的婚波(《中國青年》 2003.3)
(호위병의 혼인파동)
- ⑫ 對社會上普遍存在的各種舊意識、紅眼病，就是不好理睬，不能遷就，不能縮退，千萬別因為受了打擊就灰頹。(王毅《對照檢查五重奏》)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각종 구 의식에 대하여 질투병은 그들 때 보지 않으며 용서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다. 절대로 타격을 입었다 하여 의기소침해서는 안된다.)
- ⑬ 我國至今仍沿用50年代規定的退休年齡，造成退休人員退休年齡偏輕，開發利用輕齡老年勞動力資源，是提高老年人晚年生活水平的出路。(《北京日報》 2012.2.15.)
(우리나라는 여전히 50년대 사용하던 퇴직규정을 사용하고 있어 퇴직인원의 퇴직연령이 너무 젊다. 젊은 퇴직노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은 노인들의 노후생활수준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 ⑭ 菇吧(《新晚報》—文章標題 2010.3)
(과부존?)

예문⑩에서 ‘意緒’가 ‘心意, 情緒’인지 아니면 ‘意念, 思緒’인지 저자가

아닌 독자는 정확한 뜻을 알기 힘들다. 예문⑪의 ‘婚波’는 혼인상의 파문인지 아니면 혼례식에서의 파문인지 제목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예문⑫의 ‘灰頹’는 ‘灰心’, ‘頹喪’인지? 만약 그렇다면 ‘灰心’, ‘頹喪’의 표현정도가 ‘灰頹’보다 훨씬 강한데 굳이 ‘灰頹’을 쓸 필요가 없다. 예문⑬에서 ‘輕齡’ 중의 ‘輕’은 쉽게 사람들로 하여금 ‘輕生’ 중의 ‘輕’을 연상하도록 한다. 만약 작가가 일부러 독자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면 정말 이런 어휘들을 만들어 독자로 하여금 시간낭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문⑭의 ‘酒吧’, ‘網吧’, ‘迪吧’ 등 ‘吧’ 관련 어휘들이 유행하면서 어떤 사람은 ‘菇吧’를 만들어냈는데 무슨 뜻인지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다. 신조어는 대부분 어휘 중의 고유 형태소들을 이용하여 조합한 것으로, 기존 어휘의 개념을 기초삼아 구성되므로 음과 의미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임의로 결합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신조어는 글을 보고 바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創收’의 ‘創’은 ‘창조, 창출’, ‘收’는 ‘수입, 소득’을 뜻하기 때문에 바로 ‘수입을 창출하다’로 이해가 되며; ‘首映’의 ‘首’는 ‘처음, 첫 번째’로, ‘映’은 ‘영상, 영화’로 ‘개봉영화’가 연상되며; ‘法盲’은 상용되는 ‘文盲’을 연상하여 바로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이해된다. 비유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신조어도 그 시대의 사회풍조와 한자의 뜻을 보고 그 뜻을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87년 8월 29일 중국의 <6기 전국인대표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가 북경에서 개최함에 따라 중국의 海南道를 海南省으로 승격시켜 대학생 인재영입으로 많은 인재들이 대거 이동하는 상황이 생겨났다. 또한 중국은 외국자본의 영입을 위하여 많은 경제특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인재이동이 어느 때보다 많아지면서 ‘人才潮’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그 시대배경을 알거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人才潮’는 ‘광범위하게 인재들이 이동하는 사회조류’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人生就象一盤棋’ 중의 ‘一盤棋’는 인생이 장기 두는 것과 같이 ‘이기고 지는 과정, 인생살이가 장기수를 두는 것처럼 쉽지 않음’을 비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智力投資’, ‘電子眼’, ‘鴨舌帽’는 한자 뜻의 조합으로 ‘지력개발과 인재에 투자하는 것’, 전기 눈과 같은 ‘경보기’, ‘오리 혀 모양으로 생긴 모

자'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임의로 끼워 맞추고 형태소를 줄여서 만들어낸 ‘把場’, ‘捧獻’, ‘廉宜’, ‘生師’, ‘順勝’ 등은 뜻이 모호하고 형태소 간의 의미배합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것들을 본고는 ‘비어’라 한다. 신조어는 반드시 의미 전달이 분명하고 정확해야 되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광범위하게 전파되어야 한다.

3) 경제성 원칙

생활의 리듬이 빨라짐에 따라 사람들도 효율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어휘에도 효율성이 반영되어 정밀하고 세밀하며 시간과 힘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羅常培, 呂叔湘에 의하면 “정보전달에서 첫 번째 요구사항은 정확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간과 힘을 줄이는 것으로 합하면 효율성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언어를 놓고 말하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확함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교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²²⁾ 그러므로 경제성 원칙에 부합되는 많은 어휘들이 비록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그리 명확하지도 않지만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인다. 경제성 원칙은 어휘 축소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 ⑮ 空調 → 空氣調節器 (에어컨) 彩超 → 彩色超聲波 (칼라소음파)
 擴招 → 擴大招生 (모집확대) 競聘 → 競爭應聘 (응모경쟁)
 評質 → 評比質量 (품질평가) 博導 → 博士導師 (박사 지도교수)
 仿冒 → 仿制冒充 (가품제조) 婚檢 → 婚前檢查 (혼전검사)
 節能 → 節約能量 (에너지 절약) 作協 → 作家協會 (작가협회)
 影視 → 電影和電視 (영화와 텔레비전)
 歐共體 → 歐洲共同體 (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
 職改辦 → 職稱改革辦公室 (직책개혁사무실)
 消法 → 中華人民共和國消費者權益保護法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22) 羅常培, 呂叔湘, 〈現代漢語規範問題〉, 《文字改革》, 1985年 第5期, 90쪽.

- 三講 → 講學習、講政治、講正氣
 (공부를 논하고 정치를 논하고 바른생활을 논하다)
- 三陪 → 陪喝, 陪酒, 陪舞
 (술상대가 되 주고 함께 술을 마셔주고 동반해서 춤을 추다)
- 三鐵 → 鐵交倚, 鐵工資, 鐵飯碗 (고정된 직위, 고정된 월급과 직업)

경제성 원칙에 의해 축소할 때 보통 복잡한 말 중에서 중요요소를 발췌한다. 그렇다면하여 축소어휘가 모두 신조어인 것은 아니다.

- ⑩ 篩汰 ← 篩選淘汰 (골라서 추려내다)
 講比 ← 講評比較 (강평비교)
 述介 ← 評述介紹 (설명하고 소개한다)
 揚譽 ← 表揚讚譽 (칭찬하다)
 識拔 ← 識別選拔 (식별하고 선발한다)
 擁吻 ← 擁抱接吻 (포옹하고 키스하다)
 雜協 ← 雜技藝術家協會 (곡예예술협회)

위 예문⑬의 어휘들은 신조어고 ⑩은 비어이다. 똑 같이 어휘중의 중요요소를 축소하여 만들었는데 왜 예문⑬은 신조어라 보며 예문⑩은 비어로 보는 것인가? 그들의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

우선 侯敏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자. 侯敏은 “사용 빈도와 어휘 길이는 반비례한다.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간단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한편 고정율과 축소율은 정비례한다. 즉 어휘의 고정율이 높을수록 축소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²³⁾ 즉 신조어인지 아닌지는 사용빈도와 고정율의 문제로 귀결 된다. 위의 예문에서 ‘作家協會’를 ‘作協’로 삼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다. ‘作家協會’는 사용빈도가 높고 축소의 가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作協’의 뜻을 이해한다. 그러나 ‘雜技藝術家協會’를 ‘雜協’라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심지어 오해를 불

23) 侯敏, 〈關於新詞語和生造詞的判斷標準〉, 《語文建設》, 1988年 第2期, 54쪽.

러일으킬 수 있다. 그 원인은 ‘雜技藝術家協會’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아주 낮으며 ‘雜’를 잡다한 ‘雜’로 오해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예문 중 ‘職改辦’, ‘消法’, ‘空調’, ‘三講’, ‘三陪’, ‘三鐵’ 등은 사용빈도가 아주 높고 길이가 짧으며, 사용빈도와 길이는 반비례 하여 신조어 기준에 부합되므로 신조어라 생각한다. 두 개의 2음절 어휘가 결합하여 구성된 4음절 형용사 혹은 동사는 종종 하나의 2음절 어휘로 축소된다.

이러한 경우 응집력이 가장 큰 문제이다. 예⑩ 중의 ‘講比’의 ‘講評’과 ‘比較’는 응집력이 아주 낮다. ‘又’와 ‘而’를 삽입하여도 느슨한 느낌 혹은 과도하다는 느낌만을 주어 신조어라 보기 힘들다. ‘篩汰’는 글로 보았을 때 ‘篩選淘汰’라는 뜻으로 이해 할 수는 있지만 귀로 들었을 때 ‘衰態’(쇠퇴 상황)나 ‘搥態’(넘어진 상태)로 오인 할 수 있다. ‘識拔’는 ‘識別選拔’(알아 보고 선발하다)인지 아니면 ‘識別拔出’(분별하여 뽑아 버리다)인지 글을 보 고도 알기 쉽지 않다. 이런 어휘들은 설사 생겨났더라도 생명력이 강하지 못하여 자동 삭제된다.

축소형 신조어는 응집력이 강하며 사용빈도가 높고 오인 등 요소가 없어야 비로소 축소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이와 맞지 않은 예⑩은 모두 비어로 처리해야 된다.

다음은 엄숙함에 영향을 주는 축소어는 신조어로 취급해서는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신발가게에서 ‘人革鞋每雙30圓, 男牛鞋80圓, 女洋鞋75圓’ 등과 같이 사용한다든지 또 ‘上海吊車廠’을 ‘上吊’로, ‘上海測繪局’를 ‘上測’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엄숙하지 못한 표현이며 생활 속에서 단절되어야 된다.

일부 어휘나 문장들에서 축소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혹은 축소의 가치가 없음에도 억지로 그들을 축소하는 것은 역효과를 거둘 수 있고, 경제성을 추구하다 반대로 남용이 될 수 있다. 축소할 것을 축소해야 진정한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4) 보완성 원칙

어떤 어휘는 생겨나자마자 불필요한 어휘가 되는 것도 있다. 대부분 의 미상 기존 어휘와 동의어인 것인데 일부는 사라지지 않고 왕성한 생명력 을 갖고 존재한다. 예를 들면,

- ① 巴士 → 公共汽車 (버스)
- 大哥大 → 手機 (핸드폰)
- 電腦 → 電子計算機 (컴퓨터)
- 髮廊 → 理髮店 (이발소)
- 迷你 → 袖珍, 微型 (소형, 미니)

위 예문 중 ‘巴士’는 ‘公共汽車’의 동의어인데 음절이 적음에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 졌다. ‘大哥大’와 ‘手機’는 중국에서 핸드폰이 출시되면서 그이 동시에 생겨난 신조어인데 같은 사물을 표시함으로 ‘大哥大’는 사 라지고 ‘手機’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동의어는 다 하나가 다른 하나 에 밀려나거나 代替되는가? 李行健(1987:31-34)은 서로 다른 특징에 따라 이름 지은 동의어는 처음에는 의미와 용법이 완전 같았으나 언어 활용 과 정에서 금방 각각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데, 서로 다른 용도와 특수한 형 식이 형성된다. 이는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데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서로 다른 용도와 특수한 형식이 형성된다는 것은 실제로 기존의 어휘와 동의 어를 비교했을 때 다른 문체 및 색채에서 서로 보완작용을 함을 의미한다. 예문① 중의 ‘電腦’과 ‘電子計算機’는 상호 보완작용을 하는 것으로, 공적 인 장소, 과학적 영역에서는 ‘電子計算機’를, 일상생활 속에서는 ‘电脑’를 더 많이 사용한다. ‘髮廊’과 ‘理髮店’도 각자의 영역이 있다. 이들은 시대적 특징이 다르다. 젊은이들은 ‘髮廊’을 더 쉽게 받아들이지만, 나이든 사람은 ‘理髮店’을 좋아한다. ‘迷你’와 ‘袖珍’, ‘微型’도 상호 보완성이 나타난다. 상업적인 장소에서는 ‘迷你’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공 공장소 혹은 공식적인 표현에는 ‘袖珍, 微型’을 더 자주 사용한다. 즉 ‘微

型景觀區’, ‘袖珍詞典’이 이에 속한다.

동의어가 상호 보완작용을 한다면 이런 표현의 존재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우리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고는 이런 상호 보완작용을 하는 신생 동의어를 신조어라 한다.

그러나 일부 어휘, 예를 들어 ‘如果’과 ‘倘若’를 ‘若果’로 표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若果’는 ‘如果’과 ‘倘若’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정보 전달이 풍부해지는 반면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介紹’를 ‘紹介’로 ‘彫刻’을 ‘刻彫’으로, ‘施行’을 ‘行施’로 ‘躡涉’을 ‘涉躡’로 표현하는 것은 지향해야 된다. 이들은 서로 보완작용을 하지도 않고 의미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어이고 규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신조어의 규범부분에서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기준을 내세우고 그 원칙에 부합되어야만 신조어라 주장한다. 또 어떤 학자는 필요성 원칙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 조건에만 부합되면 다른 부분은 소홀히 해도 된다고 하거나 또 바로 비어로 처리하면 된다고 한다. 본고는 위에서 논의한 4가지 원칙 중 어느 하나의 원칙에 부합되지만 하면 신조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축소형 어휘는 명확성 부분에서 기존 어휘보다 못하지만 경제성 원칙에 잘 부합된다면 사회 구성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어떤 동의어는 보충성 원칙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사용 과정에서 상호보완성 원칙에 부합된다면 역시 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 네 가지 원칙은 똑같이 중요하다.

IV. 결 론

중국어 교육이나 중국어 연구 영역 및 중국과의 교류에서 신조어는 우리가 계속해서 접하는 언어 영역 중의 하나이다. 신조어는 정보 전달매체를 풍부하게 하며, 사람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교류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신조어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 생겨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끝없이 지속될 것이다. 신조어에 대한 연구는 언어 연구의 이론적 가치는 물론 언어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고는 2장에서 우선 지금까지 발표한 대표적인 논문들 중에서 신조어의 개념에 존재하는 언어 학계의 분쟁을 살펴보고, 신조어에 관한 다양한 정의 가운데 실제 언어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축약어를 신조어로 인정하고 있는데, 본고도 축약어가 꼭 새로운 사물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없던 표현 형식이므로 신조어로 간주하였다. 또한 이런 새로운 형식으로 기존에 있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축약어 이외에 기존 어휘를 더욱 형상성 있게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는 신조어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신조어가 반드시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사물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있던 개념이나 사물을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 또한 신조어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졌는지의 유무, 사전의 수록여부가 신조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였으며, 신조어는 아래 4가지 원칙에 의해 생성되고, 이 4가지 원칙에 준하는 역할을 하다면 신조어로 간주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기존 어휘로 대체할 수 없는 새로운 사물의 새 명칭

둘째, 기존에 어떤 사물을 표현하는 어휘가 존재하더라도 기존어휘보다 더욱 형상적이고 표현력도 더욱 탁월한 어휘

셋째, 중국어의 고유형태소로 다시 배열 조합하여 만들어진 어휘로 의미가 명확하며 오해를 야기하지 않은 어휘

넷째, 기존에 사용하던 어휘와 의미는 같지만 사용과정에서 서로 다른 용도와 특징을 지닌 어휘

본고는 이상 4가지 원칙에 부합되며 최근 20년 사이에 등장하여 사용되는, 그러나 방언과 전문용어가 아닌 민족공동어에 속한 어휘를 신조어로 본다.

한마디로 본고는 신조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으며 여러 각도에서 신조어에 대해 관찰, 묘사, 해석함으로써 문제의 겉모습만 보고 편파적으

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 연구방법을 성찰하고 신조어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여 신조어 문제를 논하고자 하였다.

신조어의 연구는 아직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신조어 생성의 심리적 문제, 신조어가 안고 있는 사회정보 등은 계속해서 탐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한두 편의 논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앞으로 꾸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구상권, 《최근 중국 신조어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구수진, 《1990년대 이후의 중국 신조어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은숙, 《현대 중국어 신조어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안준표, 《신시기 중국어의 신어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영매, 《중국 신조어 연구 -2007~2009년 신조어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희경, 《중국의 인터넷 유행어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정미란, 《현대 중국어 신조어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최윤경, 《중국 개혁개방 신조어》, 제이앤씨, 2008.
- 陳原, 《社會語言學》, 學林出版社, 1983.
- 陳原, 《關於新語條的出現及其社會意義》, 《語言研究》 2期, 1984.
- 陳原, 《變異和規範化》, 《語文建設》 1期, 1987.
- 陳原, 《新詞新語新用法》, 《語文建設》 4期, 1988.
- 符准青, 《現代漢語語彙》, 北京大學出版社, 1985.
- 高艷寧, 《大眾媒體對新詞語傳播和流行的影響》, 《湖北經濟學人民社會科學院》 1期, 2011.
- 候敏, 《關於新詞語和生造詞的判斷標準》, 《語文建設》 2期, 1988.

- 胡倩, 〈論對外漢語教學及其規範問題〉, 《凱里學院學報》 4期, 2009.
- 李曉英, 〈新詞新語產生規律探析〉, 《西安石油大學學報》(社科版) 2期, 2005.
- 李行健, 〈從語言發展和社會心理看某些詞語的規範問題〉, 《語文建設》 5期, 1987.
- 李振傑, 〈近十年漢語中新詞新義的產生〉, 《語言教學與研究》 2期, 1988.
- 劉吉艷, 〈漢語新詞語與鄰近語集合的關係辨析〉, 《渤海大學學報》 5期, 2002.
- 劉吉艷·李爽·顧阿麗, 〈漢語新詞語本體研究概述〉, 《語言文學研究》 7輯, 2011.
- 劉叔新, 《詞匯學與詞典學問題研究》, 天津人民出版社, 1984.
- 劉叔新, 《漢語描寫詞匯學》, 商務印書館, 1990.
- 羅常培·呂叔湘, 〈現代漢語規範問題〉, 《文字改革》 5期, 1985.
- 羅玉娟, 〈新詞語漢語詞匯變異觀窺〉, 《大連教育學院學報》 1期, 2002.
- 閻家驥, 《現代漢語詞典凡例》, 上海辭書出版社, 1985.
- 孫錦, 〈新時期漢語新詞語〉, 《語言文學》 6期, 2011.
- 王鐵昆, 〈新詞語的判斷標準與新詞新語詞典編纂的原則〉, 《中國語言應用》 4期, 1992.
- 王興海, 《2006~2008度新詞語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1.
- 文煉, 〈與語言符號有關的問題〉, 《中國語文》 2期, 1991.
- 徐波, 〈新詞新語文化心理透視〉, 《丹山師專學報》 4期, 1997.
- 游玉祥, 〈新詞語的特點分析及其認知解釋〉, 上海外國語大學博士學位論文, 2012.
- 張斌, 《報刊病例四百例·序》, 上海科技教育出版社, 1991.
- 趙克勤, 〈論新詞語〉, 《語文研究》 2期, 1988.
- 周薦, 〈論方言詞的確定〉, 《語言研究論叢》 1期, 1987.
- 周永惠, 〈漢語新詞語, 新詞義與新詞詞典編撰〉, 《四川大學學報》 5期, 2004.

< Abstract >

When it comes to the development of linguistics, it is said that vocabulary is the factor that changes most quickly and actively. Vocabulary develops in two forms: the formation of neologism and the termination of the old words. Of these two forms, the former is the main current one in the lexical change and development. More and more we encounter neologism. Since scholars have much interest in these, there are many related studies nowadays. However, the exact understanding of neologism starts from the exactly established concept on neologism. This study tried to establish the new concept on neologism through related studies. I compared and analyzed some scholars' slightly different definitions of neologism. Also I confirmed both the scope of time and of space, and established the new meaning between the old words and the Neologism. Additionally, I reconsider Neologism in terms of its patter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ndition.

Key Words : 신조어(Neologism), 신조어의 정의(defininitions of neologism), 신조어의 규범(norms of neologism), 신조어의 조건(condition of neologism)